



일시 : 2008년 12월 20일 (토) 2pm- 5pm

장소 : 복합문화공간 크링 (크링홀 2F)

기획 : NTM (정소영, 이성원, 정규연)

후원 : 경기문화재단

NTM은 Cushion Project 시리즈의 세 번째 쇼케이스, The Stage를 주최한다.

복합문화공간 Kring으로 이동하여 펼쳐지는 The Stage는 무대로 변신한 Cushion 위에서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예술 퍼포먼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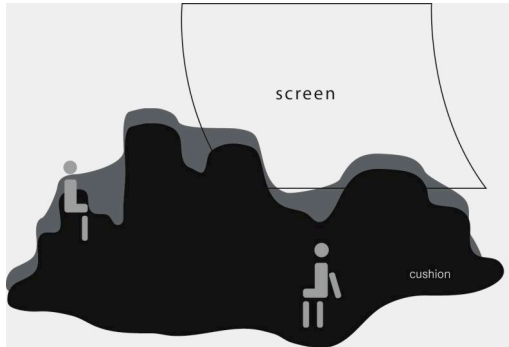
2008년 8월부터 진행되어온 Cushion Project는 바람을 불어넣어 모양이 변하는 검은 천 조형물-Cushion을 주제 또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업하는 실험적인 공공 예술 프로젝트이다. 도심의 다양한 공간 속으로 이동하고 잠입하여 펼쳐지는 Cushion Project는 형태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통하여 이동하는 공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한다. Cushion은 하나의 유량하는 텐트이고,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 봉투이자 다리 밑의 스피커이며 콘크리트 빌딩간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일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Cushion Project: 'The Stage' 는 현대 건축의 미래지향적 개념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홍보하는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Kring에 설치된다. 디자인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과장된 공간 구조(kring)와 천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최소한의 공간 구조(Cushion)와의 만남은 대조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매일 솟아나는 미래지향적 건물을 대변하는 아이콘인 모델하우스 공간에서 Cushion은 또 다른 최소 규모이지만 최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공간을 선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 공간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또한 관객이 작품의 일부분이 되는 플랫폼- Stage로 변모하여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장소가 된다. 비디오/사운드 아트, 조형 설치 작품, 음악 및 무용 공연이 만나 이루는 복합예술 작품으로서 하나의 무대이자 응접실과 같은 형태인 Stage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롭고 편안한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PROGRAM

/ Cushion 설치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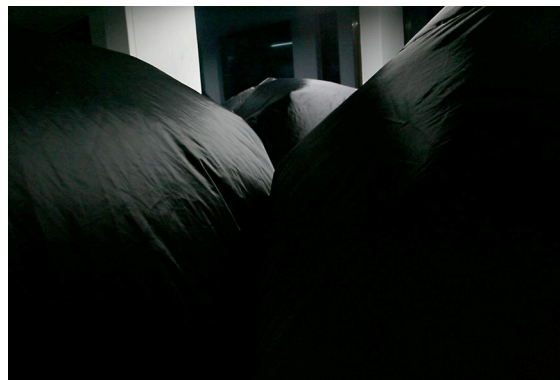
8x10m 크기의 검은 천이 바닥에 펼쳐지고 그 안에는 여러 형태의 가구들이 배치된다. 테이블, 의자, 상자, 계단 등의 모형들은 천에 가려져 그 실루엣만을 드러내어 하나의 스카이라인과 같은 도시 풍경을 그린다. 관람객은 이 조형물들 위에 자유로이 앉거나 누워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체험하고 쿠션 속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들리는 사운드 작품을 감상하거나 스크린에서 비디오 작품을 볼 수 있다. 관람객이 머무는 동안 주위로 쿠션이 서서히 부풀어져 유동적인 무대를 연출한다.



[The Stage 설치 예상도]



[쿠션 이미지]



1. 비디오 아트 영상쇼

2:00 pm-3: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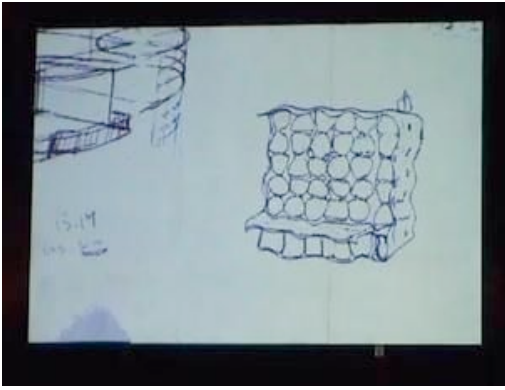
케이타 오니시 (일본), 산드로 세톨라(네덜란드), 아멍다 리포(프랑스), 김시내(한국/프랑스), 토비아스 스텐버그(스웨덴), 알렉산더 스튜어트(미국), 야닉 불로(프랑스), 윤보현(한국), 다니엘 고트링(독일), 리만타스 루카비시우스(리투아니아), 가보 캄니처(미국), 오토 모그렌(스웨덴), 라스머스 알베르트선 & 엘린 브룬 뉴스텐 (덴마크), 니나 라셀라 (핀란드)

NTM(사운드 by Lisa C.)

국내외의 실험적이고 흥미로운 영상 작업을 모아 상영한다.

Metamorphosis (마력 · 초자연력에 의한 변형)를 주제로 선정된 다양한 장르의 영상 작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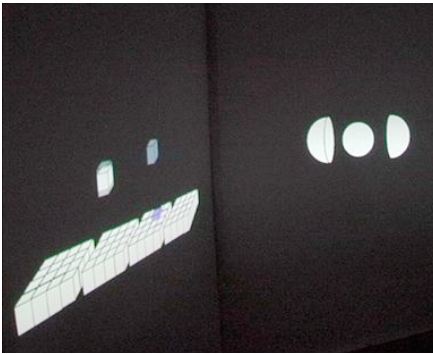
부풀려졌다 바람이 빠지는 쿠션과 같이 유동적인 이미지들은 검은 쿠션 위에 설치된 스크린에 상영되고 새로운 시각의 체험을 제공한다.



산드로 세톨라 Form follows life



토비아스 스텐버그 Ergo Sum



케이타 오니시 Polyph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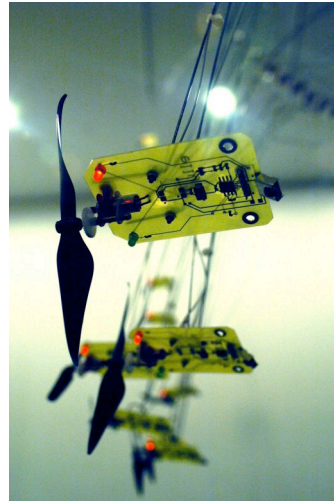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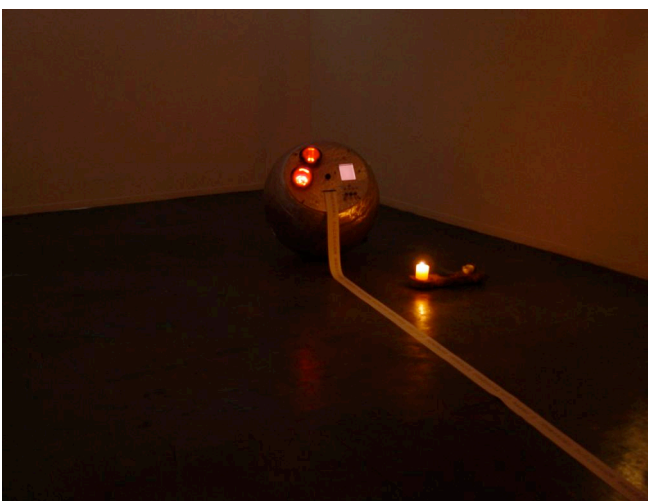


윤보현 Sound of Glass Helmet

2.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 송호준

3:00pm-3:30pm

미디어 설치 작가 송호준은 The Stage를 위해 제작한 새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공간 속으로 들어 올 때 카메라가 사람들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이 많아질 수록 스피커를 통해 들리는 도시 속의 소리들이 오히려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인터랙티브 작품이다. Nothing과 Too Much의 간극을 도시와 소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표현한다.



3. 음악공연/ 포춘쿠키 (보컬/ 홍보람, 기타/ 유희종, 키보드/ 임대웅, 영상/ 권수진)

3:30pm-4:00pm

2008년 새로운 프로젝트 앨범, 'Art of Cheese'를 발매한 포춘 쿠키는 2007년 봄, 브라질로 날아가 여행을 시작하며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여행기 속의 생생한 사진 이미지에서 벗어난, 시간이 흐른 뒤 포춘쿠키의 기억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채색된 낯선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The Stage에서는 미지의 자연풍경을 연상시키는 쿠션과 함께 호흡하며 저 먼 상상의 공간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들려준다.



포춘쿠키 (홍보람, 유희종)



프로젝트 앨범 Art of Cheese, 2008

4. 부토 댄스 공연/ 다케이

4:30pm- :00pm

일본 댄스그룹 Shizuku의 리더 무용수이자 회화 작가인 다케이. 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다. 이번 Cushion Project를 위한 NTM과의 협동 작품으로 즉흥 무용 퍼포먼스를 보여줄 다케이는 쿠션의 자연적, 인공적, 영적인 면모를 몸으로 느끼며 일본 부토를 추면서 대화를 나눈다



Nothing Too Much

NTM/ 정소영, 이성원, 정규연

www.ntmproject.com

ntmproject@gmail.com

T. 010.2725.4342/ 010.3279.5115

복합문화공간 크링

www.kring.co.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3

T. 02.557.8898